전·현직 광주비엔날레 감독들

세계 미술계를 움직인다

英 예술지 '아트리뷰' 세계 미술계 파워 100人 발표

아이웨이웨이·지오니·엔위저 감독 이름 올려 '눈길'

아이 웨이웨이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과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총감독 등 광주비엔날레 전·현직 감독들이 세계 미술계를 움직이는 '파워맨'에 등극했다.

또 브르스 나우먼과 제프 쿤스 등 제8회 광주비엔날레(11월7일까지)의 참여작가들도 영향력 있는 작가로 손꼽혔다.

영국의 현대미술 전문지 아트리뷰가 선정한 '2010년 세계 예술계를 움직인 파워 100인'에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 전·현직 감독 3명이 올랐다.

이 순위는 런던의 아트페어 프리즈(London's Frieze Art Fair)를 찾은 각국의 미술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며 미술계에 영향력을 미친 인물은 누구인가'를 묻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런던에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유럽작가와 미술관계자들이 많이 선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아이 웨이웨이 감독이 동양인과 현직 작가 중에서는 최고 순위인 13위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을 설계한 중국의 건축가겸 예술가인 그는 베이징 소재 CAAW 공동설립자 겸 예술감독(1997)이며, 진화건축 예술공원 프로젝트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8광주비엔날레 오쿠이 엔위저 감독이 42위, 2010 제8회 광주비엔날레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감독도 91위를 각각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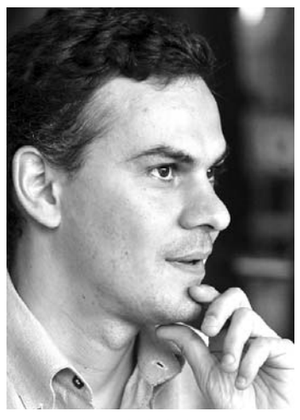
또 브루스 나우먼(17위)을 비롯해 마이크 켈리(26위), 신디 셔먼(27위) 등 이번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8명 포함됐다.

파워 100인의 1위는 갤러리 운영자인 래리 가고시안, 2위는 런던 서펜타인 미술관장인 한스 울리히 오프리스트, 3위는 갤러리 운영자인 이안 위르스가 각각 차지해 세계 미술계에서 화랑 관계자들의 영향력을 입증했다.

반면, 작가와 큐레이터 중 10위권에 든 사람은 바이스 큐리거 베니스비엔날레 감독, 로즈리 골드버그 뉴욕 퍼포먼스비엔날레 감독 단 2명에 불과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11년 아이 웨이웨이〉


〈2010년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2008년 오쿠이 엔위저〉

'덕혜옹주' 이어 '강남몽' 표절 논란

신동아 인터뷰 내용과 비슷… 황석영 "출처 일일이 밝히기 어려웠다"

소설가 권비영씨의 베스트셀러 '덕혜옹주'에 이어 한국문학 대표 작가 중 한 명인 황석영씨의 '강남몽'이 표절 논란에 휘말렸다.

이와 관련, 현재 중국에서 작품을 집필 중인 황씨는 출판사 창비를 통해 "출처를 밝히지 못한 것은 불찰이지만 이것이 표절에 해당하는가는 더 정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계속되는 표절 공방='강남몽'은 제4장 '개와 늑대의 시간'의 조직폭력배 관련 일화가 조성식 신동아 기자의 책 '대한민국 주먹을 말하다'에 나오는 증언 내용과 비슷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동아 11월호는 조씨가 수십 명의 조폭을 인터뷰하고 쓴 논픽션을 황씨가 옮겨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씨는 "'신동아' 인터뷰 내용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 떠있는 각종 회상자료와 인터뷰 내용 등을 참조했다"며 "학술논문도 아닌 데다 반세기에 걸친 현대사의 방대한 자료를 다루고 있어서 출처를 일일이 밝히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앞서 '덕혜옹주'는 덕혜옹주를 다룬 평전을 쓴 일본의 여성사 연구가 혼마 야스코의 문제 제기로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

▲표절 혹은 저작권 침해=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한다. 옮겨 쓴 내용이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표현이 같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판단된다.

황석영 작가는 "인터뷰를 바탕으로 근대화 기간 동안의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사실을 인용하면서 인물에 따라서 인간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장면'에 조명을 가해 소설적 윤색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 시비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김기태 한국저작권위원회 산하 표절위원회 위원은 26일 "표절은 남의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훔쳐온 것을 말하며,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출처를 밝히더라도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양측은 표절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창비의 경우 '강남몽'을 새로 찍으면서 참고자료를 밝히기로 했으며 다산책방도 "덕혜옹주의 남편인 소 다케유키의 시를 출처 표시 없이 인용한 부분에 대해 번역본을 사용했다는 점을 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무소유' 향기가 은은히 번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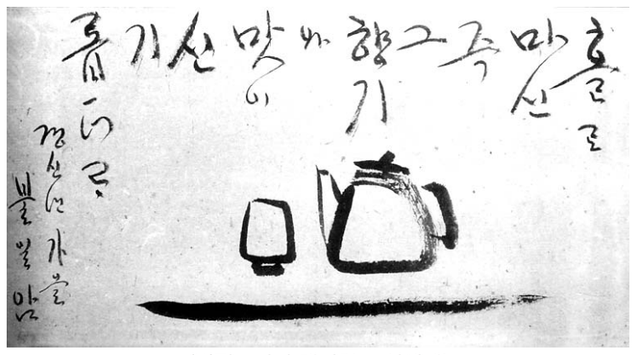
법정스님 선묵집 출간

'무소유'의 향기가 은은히 번져나오는 법정스님의 유묵을 모은 화보집 '법정스님 선묵'(도서출판 다래헌 펴냄)이 출간됐다.

이번 선묵집은 법정스님이 생전에 도반과 지인들에게 붓글씨로 써준 편지와 엽서, 묵적과 도자기, 편액 등 100여 점을 법정스님의 속가 조카이자, 제자인 현장스님(보성대원사 주지·맑고향기롭게 이사)이 엮어낸 것이다.

붓으로 쓴 스님의 글과 그림은 청정 그 자체이다. 화려한 멋은 없지만, 글씨는 곧고 바르며 그림은 투박하지만 정갈하다.

법정스님이 '다섯이랑 다를 심고 다섯이랑 채소 갈고 한나절은 좌선하고 한나절은 글을 읽고….'라며 한 재가불자에게 내린 글은 '무소유'의 정신을 전하고 있으며 상좌 덕현스님 등에게 내린 글귀나 계찰은 준엄한 가르침으로 읽힌다.


'법정스님이 대자화 보살에게'

또한 이해인 수녀에게는 초기경전인 숫타니파타의 유명한 경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인용해 쓴 편지도 눈에 띈다.

이외에도 강원도 토굴 일월암의 편액과 지인들에게 보낸 친필 부채, 편액, 도자기 글도 함께 실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월광교회 '사랑의 바자' 28~29일

광주 월광교회(담임목사 김유수·사진)는 28~29일까지 교회 주차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바자'를 연다.

특히 올해는 바자 20년을 맞는 해로 기존에 먹을거리 행사 위주로 진행됐던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민과 화합의 한마당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중국 기예단, 재즈, 가스쾰, 마술, 댄스 공연을 비롯해 통기타 가수와 함께하는 가을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월광문화센터에서는 폼 아트, 퀼트, 천연화장품, 예술 도자기 등이 전시되며, 사랑의 메시지 써주기, 문패 써주기, 핸드 페인팅으로 옷이나 손수건에 그림 그리기 등의 행사도 준비됐다. 월광도서관에서는 '도서교환장터'와 주제별 추천도서 판매전이 열린다.

이번 바자에서는 농산물 코너를 통해 생산지와 직거래한 지역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생활용품도 판매한다. 이밖에 의류, 생활용품 코너도 운영된다.

김유수 담임목사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시작한 바자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며 "가족들과 어울려 문화행사도 구경하고 바자에 참여해 작은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375-040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명지원 뜨락에 핀 국악의 향연'

29일 담양서 공연

담양에 위치한 문화 공간 예술의 마을 명지원에 국악의 향기가 묻어난다.

다양한 공연 무대를 마련해 온 명지미술관은 오는 29일 오후 7시 명지원에서 '명지원 뜨락에 핀 국악의 향연' 공연을 갖는다.

이번 무대에서는 최연자·이지선·정선심씨 등 지역 소리꾼들이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아리랑' 등 흥겨운 민요와 '심청가' 중 '횡성 올라가는 대목'을 들려주며 이현희·한명선·황소희씨는 교방무와 소고무를 선사한다.

〈최연자〉

〈이영애〉

또 이영애씨는 이명식씨의 장단에 맞춰 가야금 병창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를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는 풍물연희예술단 '광대'의 신명난 사물놀이가 장식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을밤 산사를 깨우는 우리가락 우리가요

30일 송광사 보조국사 열반 800주기 '산사음악회'

고즈넉한 가을밤 산사에서 국악과 대중가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연이 펼쳐진다.

승보사찰 순천 송광사(주지 영조스님)는 오는 30일 오후 6시 특설무대에서 '보조국사 열반 800주기 기념 고려불교문화제전'의 일환으로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연에서는 창작국악단 도드리가 보조국사 열반 800주년을 기념하여 새로 작곡한 국악 관현악곡 '송광사'를 비롯해 '섬진강', 'Contemporary 아리랑' 등 창국악곡을 선보인다.

불자 가수 연꽃의 소리(강혜윤과 순야타)가 보조국사 지눌이 제창한 정혜결사의 정신을 노래화한 '사마디 프라즈나'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선사한다.

또한 가수 해바라기와 주병선씨가 각각 '사랑으로' '모두가 사랑이예요' '칠갑산' 등 히트곡을 부를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삼월불사 등 보조국사 열반 800주년 기념행사를 열어온 송광사는 25일 송광사 방장 보성 큰스님의 법회를 시작으로 12월13일까지 매주 월요일'제6회 금강산림대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061-755-010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이번 모임은 어디가 좋을까?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가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WiFi internet zone
여름 보양 메뉴 : 굴비정식, 삼계탕, 장어정식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까지 다양한 접객실과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빔프로젝트, 음향 설비 완비
상견례, 회갑, 고희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 문의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525-2111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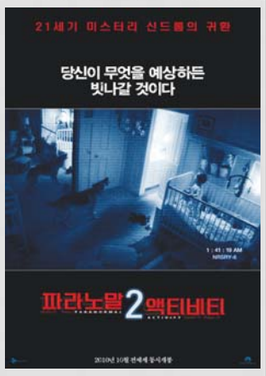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평겨운 연인과 함께!!

상담원연결 방법→(1번 or 2번)→0번
☎ 1588 - 7941

상무점 / 하남점
향토사랑 영화사랑 콜롬버스시네마

상무점		하남점	
1관	방가?방가!(12세)	1관	심야의FM(18세)
2관	22블렛(18세)/무적자(15세)	2관	검우강호(15세)
3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3관	심야의FM(18세)
4관	심야의FM(18세)	4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레터스 투 줄리엣(12세)
5관	레터스 투 줄리엣(12세) 적인걸-측천무후의 비밀(12세)	5관	슈퍼배드(전체)/적인걸(12세)
6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12세)	6관	22블렛(18세)/방가?방가!(12세)
7관	된장(12세)	7관	참을 수 없는(18세)
8관	참을 수 없는(18세)	8관	된장(12세)
9관	검우강호(15세)	9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12세)
10관	윌스트리트(12세)	10관	윌스트리트(12세)

향토사랑! 영화사랑! 매일 심야상영 /호남최대주차장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구. 런던약국사거리
☎ 1544 - 0600

MEGABOX

M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12세) 최고급관
2관	검우강호(15세) 파라노말 액티비티2(12세)
3관	된장(12세)
4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심야의FM(18세)
5관	심야의FM(18세)
6관	방가?방가!(12세)
7관	참을 수 없는(18세)
8관	레터스 투 줄리엣(12세)
9관	윌스트리트(12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511-1000

CINUS

1관	방가?방가!(12세)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2관	레터스 투 줄리엣(12세)/22블렛(18세)
3관	파라노말 액티비티2(12세)
4관	적인걸(12세)/검우강호(15세)
5관	참을 수 없는(18세)
6관	심야의FM(18세)
7관	윌스트리트(12세)

색깔있는 영화산책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